

침경(鍼經)

이홍재

30여년 이상 침술을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해외에 여러 침술대학을 세운 이홍재 박사가 우리 일상의 질병 대부분을 이루는 100가지 질병다루기를 1개월 강좌로 소개합니다.

이홍재 박사는 3월 중순 미국 대학설립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전에 이루어지는 이번 강좌는 침을 주로 다루지만 경락과 침·편자를 다루는 종합적인 체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편집자 주)



소양학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소양학파의 창시배경

수만년간 인류문화의 발달에 따라 질병을 다스리는 의술 역시 발달하여 중요한 문화로 정착하였습니다. 환자를 보살핀 경험이 후세에 전수되어 더 숙달되고 인류문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의술문화의 발전과정에서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를 여덟 가지로 구별하여 팔강(八綱)이라 했습니다. 팔강은 음양, 표리, 한열, 허실(陰陽, 裏表, 寒熱, 虛實)의 4대 강령인데, 음, 리, 한, 허증은 보법으로 다스리고 양, 표, 열, 실증은 사법으로 다스린다는 기준을 정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팔강은 환자를

진단하는 한의학의 기본이 되었고 수천 년을 그렇게 답습해 오면서 이전의 발생할 수 있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환자의 치료효과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팔강의 기들은 탁월하고 견고한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기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만한 개연성이 없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도래로 질병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서양의학의 눈부신 발달과 확장으로 기존의 전통의술과 문화적 충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존의 경험에 의해 작성되었던 전통의술의 학문적 구조와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양학파는 20년간 침술을 가르치고 자비의 손을 통해 무료시술하면서 음양, 허실, 한열, 표리가 혼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질병증상에 대하여 팔강으로 분석이 어려운 환자의 시술에 기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소양학파가 운영하는 ‘자비의 손’을 찾아오시는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으로서 그들의 퇴행성 증상들은 대부분 팔강혼재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팔강혼재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시술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자비의 손의 환자 시술차트를 바탕으로 사례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처방을 연구하고 검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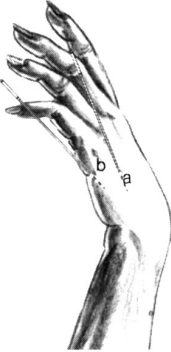
그 결과 이를 ‘반음반양의 증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음반양의 경락’이라고 할 수 있는 ‘소양경의 혈들’을 활용해 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재현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반음반양의 증상에 대하여 소양경락의 치료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통해 완성된 소양이론

지금까지 팔강혼재의 증상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방침을 규명하여 제시된 적이 없었으므로 소양학회의 팔강혼재에 대한 소양경처방과 시술을 통해 확보한 기록은 독창적인 것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섬세한 기법을 구사하는 일본이나 많은 임상대가들이 활동하는 중국의 침술처방에도 이에 관한 전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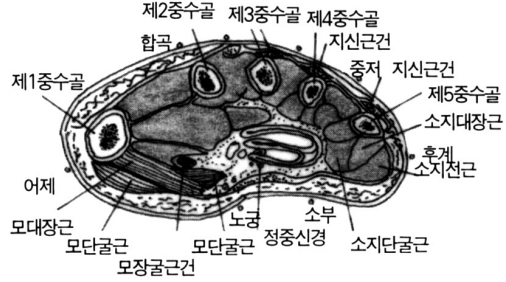
소양학과 주치혈

【손등에서 쓰는 수소양삼 경의 중저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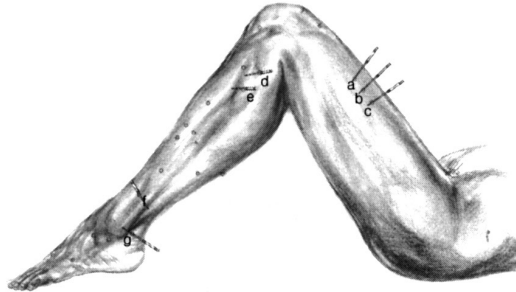


a 중저
b 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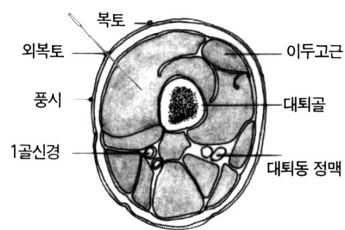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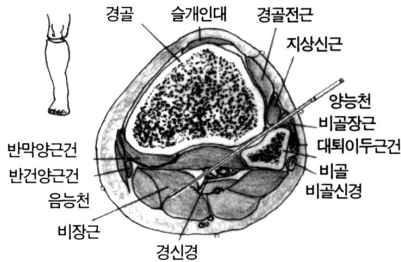
【중저혈의 열개그림】



a 외복토1
b 외복토2
c 외복토3
d 양능천1
e 양능천2
f 현종
g 근륜



【다리의 족소양 담경의 양능천, 2, 현종, 전풍시(외복토), 2, 3.】



【다리에서 양능천, 2, 현종 전풍시(외복토), 2, 3.】



15711
 AGLAHABAD NH
 15711, MIA
 CANPUR
 FIROZABAD
 ALIGARH

지난 11월 이종재 박사의
 침술치료를 받기위해
 줄서있는 사람들

인도에서의 무료침술

간봉사를 하는 이종재 박사는
 동아시아 많은 지역의 정부와
 협력하여 일을 하고있다.



험임상기록이나 논문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연구하여 팔강혼재 증상(반음반양, 반허반실, 반표반리, 반열반한)에 대하여 이를 ‘중복증상이라고 정리하여 음양 중간에 위치한 소양증’이라 진단하였습니다. ‘소양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소양증 전문처방을 확보’ 하였으며, 이를 소양증 환자들에게 적용, 시술하여 탁월함을 확인해 재현성이 입증되어 비로소 소양학과를 창시하였습니다.

팔강혼재의 증상들은 팔강으로 명료하게 판증되기 어려운 증상으로서, 예를 들면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불면증, 낙침, 견통, 배통, 오 견, 거수불능, 주관절통, 완관절통, 요골근견염, 손시림, 손저림, 수장열, 안통, 비염, 축농증, 구안와사, 증풍, 늑간신경통, 요통, 좌골신경통, 슬관절통, 발목염좌, 족근통, 발저림, 발시림, 요실금, 전립선염, 생리통, 갱년기장애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음증과 양증, 리증과 표증, 열증과 한증들이 혼재되어 팔강으로 구분하려고 접근하였다가는 애당초 분류가 어렵고 혼재된 증상이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학과에서는 위의 모든 증상들을 소양증으로 보고 소양경으로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기본처방을 작성하였습니다. 기본 처방은 손에서는 수소양삼 경의 중저혈과 외관, 지구혈을 쓰고, 다리에서는 양능천, 현중, 족임읍혈과 전풍시(외복토)혈을 쓰는데, 모두 최대한 깊게 써서 강하게 다스립니다. 다만 위의 증상들에 대하여 소양경의 특효 혈들을 중심으로 쓰면서 한두 개의 보조 혈을 차용하여 쓰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손발 증상에 상팔풍 팔풍과 상팔사 팔사를 더해서 쓰고, 오 견 거수불능에 독비 조구혈 등을, 요실금에 중극, 귀래를 더하는 등입니다.

안구건조증(眼球乾燥症)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던 성남시 분당의 젊은 주부

2000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사는 33세의 여인이 어깨가 늘 아프고 온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서 왔습니다. 침을 다 맞고 돌아갈 준비를 마친 다음 핸드백에서 작은 플라스틱병 하나를 꺼내더니 눈을 깜박거리면서 몇 방울의 약물을 눈에 떨어뜨려 넣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보다가 불려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눈에 뭘 넣는 겁니까?”

“네, 인공눈물입니다. 눈에 눈물샘이 막혀서 눈물이 안 나오는 안구건조증이 있어요. 눈물샘 기능이 완전히 폐쇄되어 눈물을 만들 수 없어서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하고 아파요. 그래서 평생 인공눈물을 넣어야 된다는군요.”

“평생 인공눈물을 넣어야 된다고 누가 그러니까?”

“S병원 안과의 K박사님께서 정말 진단을 한 다음에 그러시던데요?”

“정말, 이렇게 평생 인공눈물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진작 말씀하시지요. 어깨 침 치료받을 때 함께 하면 될 텐데...”

“네? 침으로 안구건조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다시 이리 누우세요. 몇 년 되었어요?”

“처녀 때부터인데, 정말 침으로 눈물을 나오게 할 수 있으세요?”

“어허, 참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서 누우세요.”

“사실은 한의원에 갔더니 눈물을 나오게 할 수 없다던데...”

이렇게 해서 그녀를 다시 눕히고 안와침법을 시술하였습니다.

안와침법은 눈을 가볍게 감은 채 눈동자만 돌려 정수리를 쳐다보는 것 같이 눈동자를 위로 올려 쳐다보도록 한 자세에서 먼저 승음에 쫓습니다. 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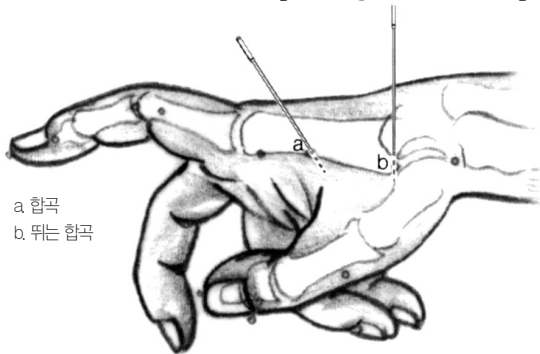
손가락으로 안구와 안와의 뼈를 확인한 후 침을 내장한 침관을 승읍에 대고 1cm쯤 밀어 넣어서 안구와 안와의 틈을 확보하고 침관을 수직에서 아래 으로부터 약 5도쯤 기울어지게 하여, 침이 안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 다음 침을 조심스럽게 쳐 넣어서 절피와 안륜구근에 침이 1cm쯤 꽂고 조심스럽게 침관을 들어냅니다. 그런 다음 침을 조심스럽게 세워서 침병(鍼柄)을 잡고 섬세하고 신중하게 다시 꽂는데 깊게는 5cm정도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의 수기는 아마도 현존하는 침술 수기 중에서 가장 섬세한 세기에 속하는 최고급 수기로서 숙달된 경험자가 아니라면 1cm정도의 깊이만 되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절대로 지나치게 깊게 꽂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심할 일은 침을 꽂는 과정에서 침을 집어넣을 때 들어가는 결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면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침을 1mm쯤 후퇴시킨 상태에서 멈춰야 합니다. 아마도 가느다란 혈관이 침에 의해 파열된다면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출혈이 생기면 멍이 들게 되고 최소한 3주 정도 지나야 정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안와침법을 시술하는 데는 무리해서 깊게 꽂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은 예민해서 깊게 꽂지 않아도 효과가 좋습니다. 눈에 침을 꽂는 것도 섬세한 수기를 요구합니다만 침을 뽑을 때도 조심해서 뽑아야 합니다. 안와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종종 실수를 해서 눈자위를 퍼렇게 멍 들여 놓고 민망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5분 후 침을 빼고 느낌을 물으니 눈이 시원하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공눈물을 넣지 않고도 불편함없이 살고 있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아픈 티(症狀症勢)

눈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눈이 건조해지고, 눈을 깜박일 때 눈꺼풀이 결막을 다치게 해 눈알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하고 아프며 억지로 눈을 깜박이게 되면서 안구표피가 손상되어 안구출혈이 되는 등 크게 고생하는 증상입니다.

【안구건조증에 함곡과 뒤는 함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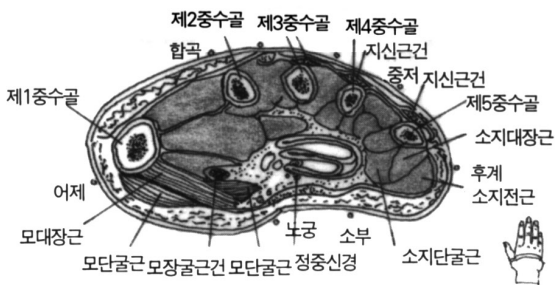


니다.

다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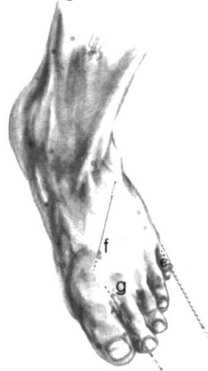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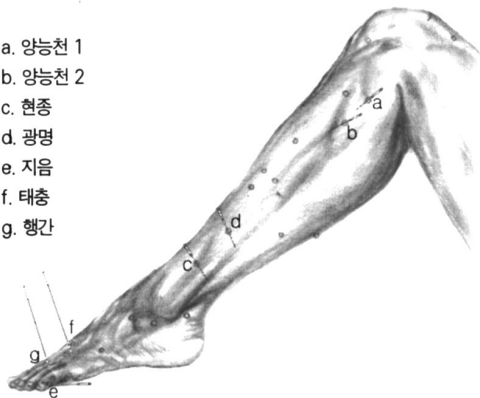
손: 뛰는 함곡(上合谷)
/ 다리, 발(腿足): 태충(太衝), 지음(至陰), 현중(懸鍾), 광명(光明) / 머리, 목(頭, 項): 천주(天柱), 풍지(風池) 완골(完骨)

【함곡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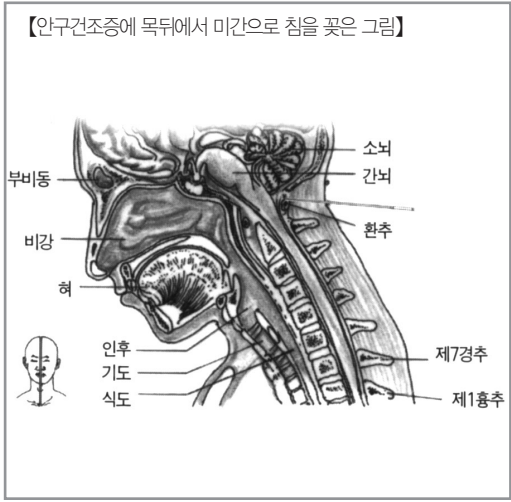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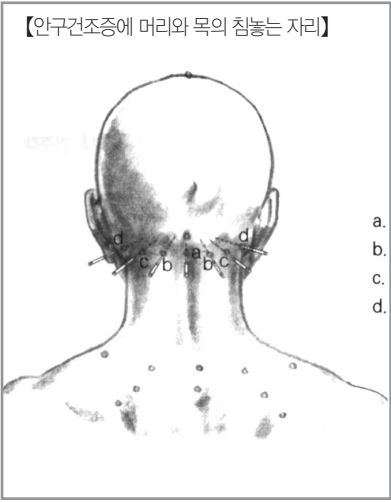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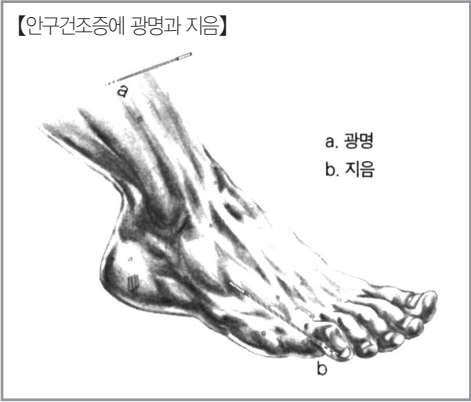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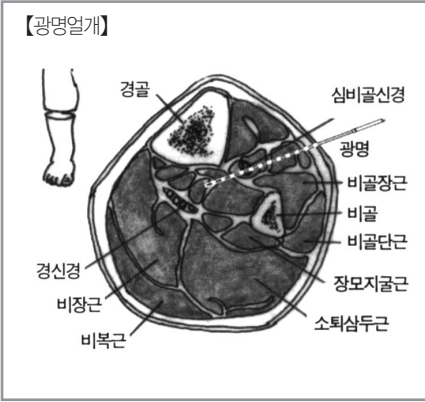
【안구건조증에 발과 다리 침 지리】

- a. 양능천 1
- b. 양능천 2
- c. 현중
- d. 광명
- e. 지음
- f. 태충
- g. 행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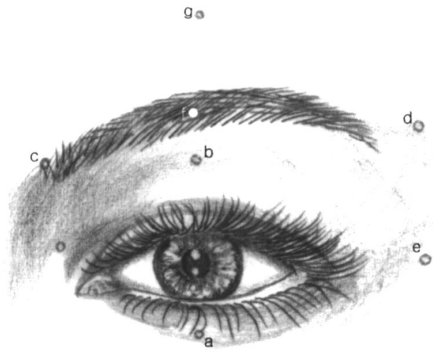


:안와침법(眼窩鍼法)

승읍(承泣), 상명(上明), 찬죽(?竹), 동자료(瞳子) 양백(陽白), 어요(魚腰), 사죽공(絲竹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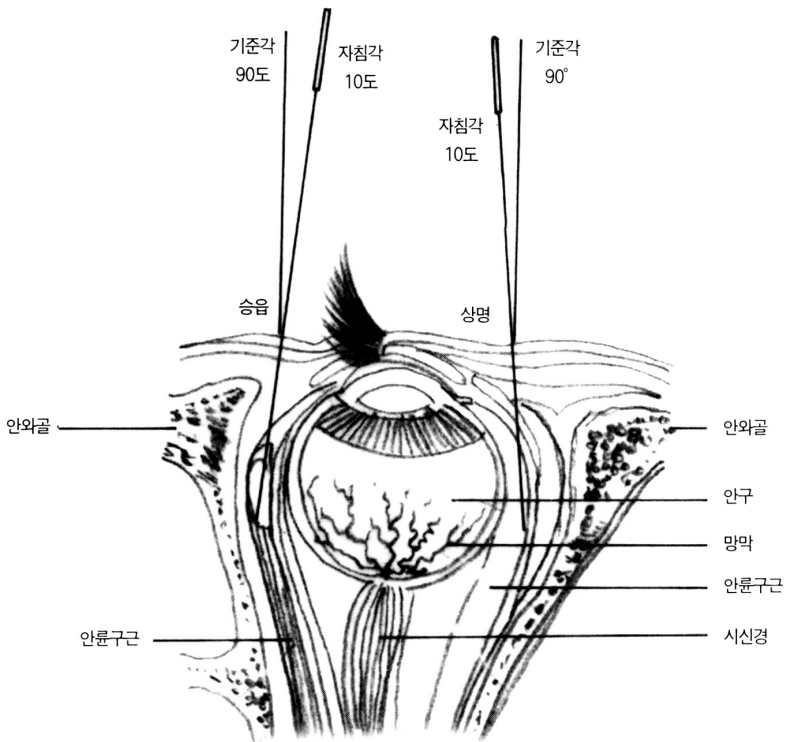


- a. 승읍
- b. 상명
- c. 찬죽
- d. 사죽공
- e. 동자료
- f. 어요
- g. 양백



【안구건조증에 안와침법】

【안구건조증에 안와침법】



편두통(片頭痛) - 옆머리가 아픈 것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머리가 아픈 사람은 참으로 흔하면서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대명동에 사시는 신 보살님과 황보 회장님께서 저를 위해 대구에서 전통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침을 가르치고 아픈 분들에게 무료시술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정명원(精明院)이라는 성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보살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여서 대구의 한의대 학생들은 물론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대구로 내려가 전통침술을 가르치고 무료시술을 하였습니다.

1999년 장마비가 엄청 쏟아지던 늦여름, 그날도 장마비를 무릅쓰고 많은 분이 찾아와서 시술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찾아온 다른 분들의 시술을 모두 끝내고 마지막 한 분에게 시술을 하고 있었는데, 스킨 방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저는 침 시술에만 집중하여 새로 들어오신 분에게 눈길을 줄 수 없었습니다. 침을 꽂는 데 약 5분에서 10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침을 다 꽂고 나서야 문득 좀 전에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 60대 아주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선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흔히 침을 맞으러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들어오면 빈자리에 앉고 묻지 않아도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또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말하곤 하십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서서 제가 침놓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려준 사람은 30년 가까이 침술봉사를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어? 아주머니 들어오셨으면 앉으시지 왜 서서 계십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선 채 대답을 하시는 아주머니의 단아한 모습을 보면서 처연하고 서글픈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침놓으시는 데 방해가 될까봐서…”

참으로 혼치 않게 대구에서 듣는 서울 말씨였습니다.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편히 앉으시지요.”

“죄송해요. 오늘은 끝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요. 동네에 잘 아는 아주머니가 선생님께 침을 맞고 오래 앓던 편두통이 싹 나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폐가 되는 줄 알면서도…”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 앉으시지요.”

“그럼, 엄치 불구하고 앉겠습니다.”

환자 기록부를 내어 써 내려가면서 자세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네. 저는 머리가 오래 아파서 왔습니다.”

“앞머리, 옆머리, 뒤 머리 중 어디 머리가 아프세요?”

“옆머리가 아픕니다.”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어요.”

“오래요? 얼마나요? 두 시간이요? 아니면 열흘이요?”

“어머. 호호호. 아니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나서 어휴~ 하고 한숨을 푹 쉬더니

“50년이요.”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누우시지요.”

소양학파에서는 이런 경우를 반음 반양의 전형적인 소양증상으로 보고 소양경락으로 다스리는 쾌방을 창안하였고 당연히 소양경락을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사관 트고 아픈 쪽 양능천(陽陵泉), 현중(懸鍾)에 5cm 깊이로 바로 꽃기로 치고 족임읍(足臨泣)을 1cm 깊이 바로 꽃기로 때리고 손에서 중저(中渚)를 보법으로 누어 찌르고 한 차례 모두 비벼 자극을 한 다음 물었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아프세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나에게 마술을 거셨어요?”

“마술이요? 아니예요. 침으로 다스린 것이지요.”

“어머나, 침을 많이 맞으러 다녔어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었는데…”

“하하, 아마 그 때 그 의원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었나 보지요.”

“그런 건가요? 그럼 선생님과는 인연이 맞나 보네요?”

“아마 그런가 보네요. 좀 낳으셨나요?”

“네, 마치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머릿속이 화~ 하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머리가 아픈데 왜 머리에는 하나도 침을 꽂지 않으세요?”

“하하, 아주머니는 지금까지 아픈 머리에만 침을 맞으셨나 보지요? 저는 침을 꽂기 위해서 꽂는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침을 꽂거든요”

“그럼, 머리에 침을 꽂으면 낫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도 머리에 침을 꽂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손발에 꽂는 것이 더 잘 낫거든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왜 머리에만 꽂는 거지요?”

“그분들은 손발에 침을 꽂아 편두통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아니 왜요?”

“지금 꽂아드린 침술 방법은 나만 쓰는 것이니까요”

“어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하,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침놓는 것을 선생님께서 개발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지금처럼 놓는 침을 다른 데서 맞아 보셨어요?”

“오호라, 이제 생각하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선생님이 개발하신 이런 침술 방법에 이름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지어드릴려고…”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무어라고 지으실려고요?”

“박하침이요. 머리가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환해요”

“하하, 박하사탕이요? 그거 좋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처방을 박하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놓는 것을 무어라고 부르시죠?”

“소양학과 침법이라고 합니다.”

“호호호, 뭐가 그래요? 소양강 처녀가 만들었나? 호호호”

“하하, 네, 제가 소양강 처녀예요. 하하.”

그러나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1년 봄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40대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편두통이 한번 도지면 3개월 이상 일을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고질적인 편두통이 발병하였는데 내일 일본으로 중요한 출장을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며, 너무 아파서 아무래도 출장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것 저것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양방과 한방병원을 오래 다녔지만 병의 원인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침술은 병의 원인을 모르더라도 시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병에 꼭 원인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양경락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예의 양능천1,2, 현중, 족임읍 그리고 중저를 보하여 태연에서 열결로 얇게 뉘어 찌르기로 사(瀉)한 다음 물었습니다.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15분 후에 침을 모두 빼고 편자를 붙여주면서, “일본 출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 보세요. 여기 붙인 것은 편자라고 하는 신물질인데 일주일 동안 일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는 출장을 다녀와서 편자 덕을 톡톡히 보았다며 일도 만족하게 잘 보았다고 했습니다.

2002년 8월에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동안 아프지 않았는데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찾아온 그분을 같은 방법으로 정성껏 시술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 같이 쉽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동안 병원에서 뇌사진도 찍고 입원도 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침 시술 효과도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타임지를 들고 왔습니다. 타임에 편두통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자신의 증상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잡지의 내용은 불면증과 편두통이 함께 나타나면서 고생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과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귀 뒤의 작은 핏줄에 혈류의 이상을 보이며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서너 달 아프다가 그냥 사라지기도 하는 것인데, 적당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이고 아직 미혼이며 아버지는 저명한 목사님이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데 한 번 일을 손에 잡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은 하지 않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로 피우며 식사는 많이 하지 않지만 육식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편두통을 고쳐드리기 위해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었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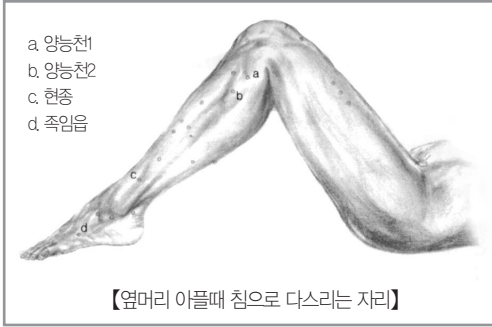
드러나 보이는 아픈 티(症狀症勢)

머리(偏頭痛)라고도 하는 옆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밑절미(原因)

옆머리가 아픈 것은 귀가 뚫거나 귀청을 앓는 것이 옮겨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때가 많아 흔히 신경성(神經性)이라고 하는 두통으로 원인불명이 많습니다. 머리의 잔 핏줄에 피의 흐름이 나빠서 통증이 오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고,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 시차가 원인으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이 시원치 않거나 고달프고 하기 싫어 괴로워 견디기 힘들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짐스런 삶의 찌꺼기가 쌓이면 쪽머리를 앓게 되는데, 쪽머리는 오래된 것이 많고 추스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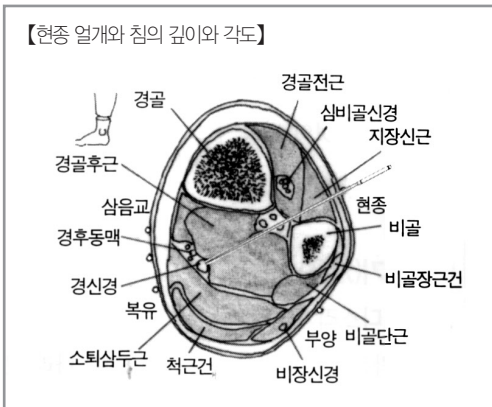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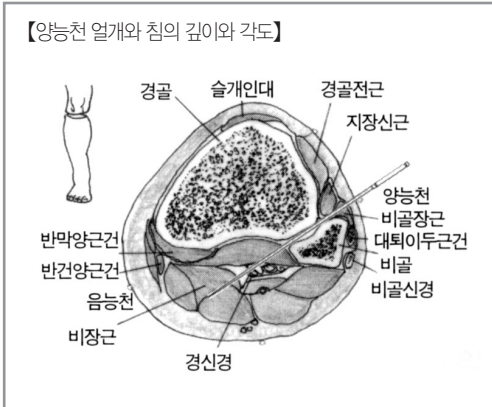
어려우며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잘 낫지 않는 흔한 질환입니다.



다스리기(治療)

: 침으로 다스리기

소양경락은 옆머리에서 몸통의 옆으로, 다리 옆으로, 인체의 옆면을 흐르면서 인체의 옆에 나타나는 증상을 잘 다스립니다. 옆머리가 아픈 것 역시 소양경의 요혈들을 쳐서 바로잡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양능천(陽陵泉) 1, 2, 현중(懸鍾), 족임읍(足臨泣)을 씁니다. 모두 가장 깊게 쓰고 아픈 쪽만 쓰면 되는데 썩 잘 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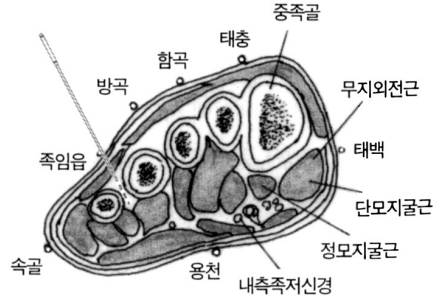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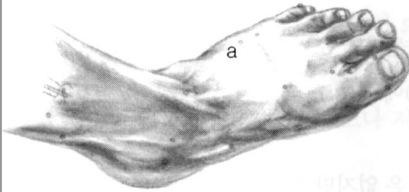


: 옆머리 아플 때 편자로 다스리기


1. 손의 뒀는 합곡, 태연에 사범으로 붙이고 양능천 1, 2 족임읍을 보법으로 붙입니다.
2. 사죽공(絲竹空), 동자료(瞳子膠), 족임읍(足臨泣)에

【족임음 열개와 침의 깊이와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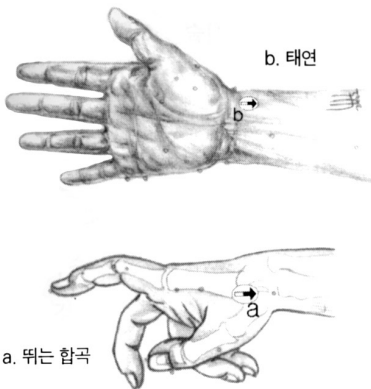
a. 족임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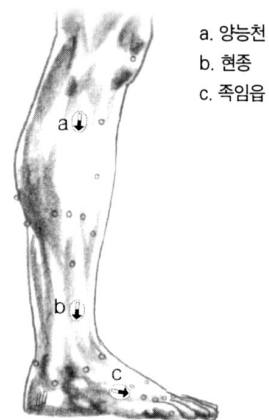
붙여도 잘 낫습니다. 옆머리 아픈 것은 아픈 쪽에만 붙여도 잘 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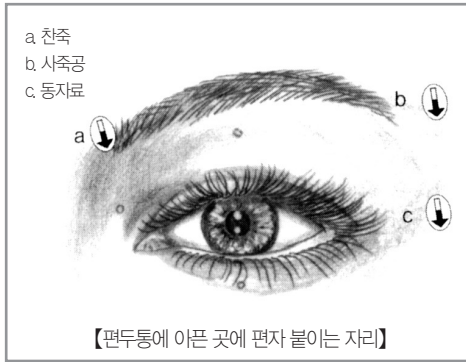
* 절대로 편자를 많이 붙이지는 마십시오.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가 떨어집니다. 처방 1을 붙이셨으면 처방 1만 붙이시고, 처방 2를 붙이실 것이면 처방 2만 붙이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편두통에 손에 편자 붙이는 자리】



【편두통에 발에 편자 붙이는 자리】





저자 | **문광 이홍재** | 1949년생. 1973. 11 역술과 침술 전수. 인도 캘커타 제5회 세계 대체의학 콩그레스에서 1997년 세계대체의학자로 선임. 캘커타 오픈유니버시티 이학박사 수여. 1981년부터 무료침술봉사그룹 '자비의 손' 설립 후 현재까지 무료침술봉사 중. 2004. 4. 미 캘리포니아에 University of American Science 설립 중. 인도, 네팔, 터키 등지에서 무료침술 봉사를 하고 있음. [저서] 침술 14경락 도해(2001), 50가지 질병 침으로 때려잡기-침술임상실기(2001), 편자 요법(2001), 14경락 영문도해판(2004), 침경(2004). [연구] 자력선으로 경락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국내 및 PCT 발명특허출원(2002).